

평일 미니시리즈 막장극 언제까지



‘왜그래 풍상씨’



‘황후의 품격’

지상파, 좋은 대본·제작진 케이블과 종편에 빼앗겨 ‘교육책’ 위기의 현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발상 전환·혁신해야

이 정도면 주말극을 평일 미니시리즈로 압축해 그대로 옮겨온 것 아니냐 해도 무리가 아니다.

좋은 대본과 제작진을 속속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 빼앗기는 지상파가 교육지책으로 주말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평일 미니시리즈를 맡기면서 평일극의 통속화 또는 ‘막장극화(化)’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흥행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교육지책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을 보인다.

가장 먼저 이런 시도를 한 곳은 SBS다. SBS는 ‘아내의 유혹’, ‘언니는 살아있다’ 등으로 막장극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김순옥 작가가 수목 미니시리즈를 맡겼다.

황실이라는 가상 배경을 도입했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수위는 김 작가의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존속살인을 포함한 살인, 살인 청부, 폭력과 고문, 방화 등 범죄 소재가 대히 등장하며 출생의 비밀과 특유의 건조한 억누름 연출이 등장한다.

시청률 측면에서 보자면 SBS의 이번 전략은 성공했다. 김순옥 작가의 거침없는 필력이 평일 미니시리즈라는 짧은 호흡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다. 시청률은 이미 16%대(닐슨코리아)를 돌파해 남은 기간 20%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이에 KBS 2TV는 통속극에서 인상적인 필력을 보인 문영남 작가에게 수목극을 맡기면서 해당 시간대 ‘김순옥 대(對) 문영남’ 구도가 완성됐다.

문 작가는 유준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통속적인 가족극 ‘왜그래 풍상씨’를 지난 9일 선보였다.

가정을 통째로 짠 어린 장남 풍상(유준상 분), 그런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각각 자기 멋대로인 동생들의 모습은 그동안 주말 홈드라마에서 자주 본 모습 그대로였다. 시작부터 장례식장에서 시댁말로 ‘깡판’이 벌어지는 장면 역시 그랬다.

그러나 문 작가 특유의 필력이 주부 시청자들을 가져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황후의 품격’과 MBC TV ‘붉은 달 푸른 해’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고 ‘왜그래 풍상씨’는 첫 회부터 6%대 시청률로 출발할 수 있었다.

유준상의 열연과 문 작가의 필력이 계속 시너지를 낸다면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상파 평일 미니시리즈의 주말극화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MBC TV ‘나쁜형사’나 KBS 2TV ‘동네번호사 조들호’ 등 장르극 역시 시도 하지만 케이블, 종편과 같은 소재를 극화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화면과 연출 등이 발목을 잡는다. 시청률 역시 지상파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통속적인 홈드라마나 막장극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

지상파로서는 제작비도 여타 장르극만큼 많이 들지 않고, 기존 작가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는 통속극과 막장극을 평일 미니시리즈로 가져오는 데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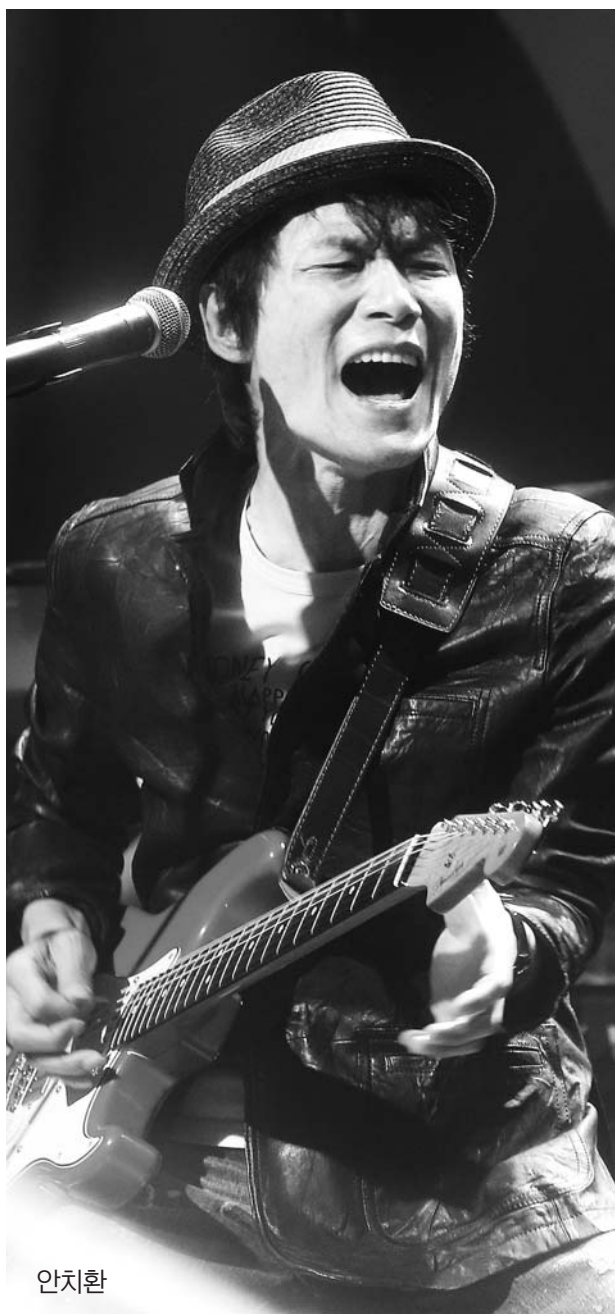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한국극예술학회장은 12일 “지상파가 주중 미니시리즈에서 힘을 못 받아 타개책으로 주말극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투입하는 거 같다”며 “물론 문 작가의 경우 ‘장밋빛 인생’ 등 평일극도 썼지만 기본적으로 시청률을 노린 전략”이라고 짚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집체한 지상파 평일 미니시리즈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교육지책이지만 이러한 전략만을 내놓는 지상파가 정말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며 “발상의 전환, 혁신 없이는 공통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외쳐라 ‘백년의 함성’

안치환, 3·1운동·임정100주년 기념곡 발표



안치환

싱어송라이터 안치환(54)이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음원 ‘백년의 함성’을 발표했다.

14일 안치환 측은 따르면 ‘백년의 함성’은 3·1 운동 이후 100년의 우리 민족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행진곡풍 노래다. 곡은 1919년 3월 1일 수천 명이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 만세를 외친 모습을 연상시키는 함성과 비장한 멜로디가 오버랩되면서 시작된다.

‘만세 만세 만세/ 백년의 함성 외쳐라/ 만세 만세 만세 민족의 긍지 높이 세워라’란 후렴구의 웅장한 울림에 이어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영원하다/ 우리 비록 빼앗겼으나 붉은 피로 되찾은 조국이다’란 가사가 흘러나온다. 안치환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우리’와 ‘민족’이란 가사가 반복된다.

안치환 측은 “음악의 사상은 3·1 운동 당시 공원의 모습을 담았지만 곡 중간 등장하는 밴드 사운드는 1980년대 학생 운동 정신을 함한 시대적 저항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소개했다. ‘백년의 함성’은 안치환이 지난해 3월 제주 4·3 70주년 기념곡 ‘4월 동백’에 이어 역사와 민족을 기억하고자 만든 노래다. 2016년에는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치환은 대학시절 노래방 ‘올리타’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통해 시대의 노래꾼으로 인정받았으며, 민중가요의 특성인 집단 이야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야기를 소박한 포크록으로 담아낸 ‘내가 만일’ 등으로 사랑받았다.

1997년 결성한 밴드 자유와 함께 이듬해 5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정규 앨범 13장과 기획 앨범 5장, 디지털 싱글 2장 등 총 20장의 음반을 냈다.

/연합뉴스

JTBC, ‘아시아 텔레비전 어워즈’ 대상 등 4관왕

JTBC는 아시아의 에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텔레비전 어워즈’(ATA)에서 대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3회를 맞은 ATA에서 4관왕에 오른 국내 방송사는 JTBC가 유일하다.

JTB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칭시 보르네오 컨벤션 센터에

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케이블&워싱 부문 올해의 최우수 채널’을 받았다. 또 예능 ‘아는 형님’으로 ‘최우수 코미디 프로그램상’을,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최우수 드라마상’을, 드라마 ‘미스터리’의 배우 김남주에게 수여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김용달 JTBC 부사장은 시상식에서 “JTBC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채널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KBS가 ‘길 위의 뉴요커’로 ‘최우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상’을, CJ ENM(tvN)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로 ‘최우수 정보교양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5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니우스 5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빠리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윈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55 300회 특집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김상옥>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10 불발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결작 다큐멘터리(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기차 타고 구석구석 우리가 물렀던 일본 2부 눈과 도깨비의 나라, 이키타〉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아궁이기행22부 아궁이 없는 못살아〉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4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선재쌤님의 수수부꾸미〉	16:45 당동맹 유치원1~2	24:50 한국영화특선 <더 테러 라이브〉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2월 10일 壬子)
子 36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8년생 무엇을 생각하고 벌이든 별 의미가 없다. 60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72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과는 같다. 84년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7, 94	午 42년생 체계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54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66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78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90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29
丑 37년생 목표를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49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용하고 있다. 61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니 확실히 붙잡아라. 73년생 막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니 진행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느니라. 85년생 상호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8, 83	未 43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라. 55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사상이니라. 67년생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79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해 보자. 91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41, 16
寅 38년생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50년생 그다지 힘들지 않고 차차하게 된다. 62년생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74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86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1, 18	申 44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6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68년생 마음만 달랠 수는 없다면 바로 행운을 잡으라. 80년생 세련되게 다음을 필요가 있다. 9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행운의 숫자 : 90, 06
卯 39년생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 하리라. 51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3년생 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75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87년생 지금의 추세라면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3, 90	酉 45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57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69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니 정중동의 지혜를 살려라. 81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93년생 앞만 보고 달려라. 행운의 숫자 : 68, 49
辰 40년생 지나간 일은 무의미하니,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52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64년생 마주 보고 대화하면 쉽게 풀 수 있다. 7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8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94, 64	戌 34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마당이다. 46년생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소신에 충실할 때다. 68년생 핵심 가치에 충실함이 적절하다. 70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82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행운의 숫자 : 58, 89
巳 41년생 정상적인 상태의 진행이라야만 무난하겠다. 53년생 자음이 맑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65년생 번번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77년생 채도안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9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60	亥 35년생 대체로 순류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47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9년생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의미하니 주된 속성을 인식하라. 71년생 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05, 5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